10. 흔암리 선사시대 거주지 발굴 탄화미에 관한 연구

(서울대농대) 이춘영
(작물개량연구소)박태식 **

한국의 고대농업사에서 미작의 기록이 국내나 국외문헌 및 자료에 의하면 AD 1세기가 가장 최고 기록이고 또한 증거물도 희귀하여 김해패총에서 발견된 탄화된 쌀덩리가 최고였었다. 그러던중 1976년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및 박물관팀이 여주군 점동면 흔암리 선사시대 주거지를 발굴하던 중 탄화미 및 기타 작물이 출토되었다.
여기에서 함께 출토된 목탄을 C^{14} 년대 측정을 한 결과 약 B.C 7세기로 나타난바 이는 우리 농업사 및 미작의 전래에 관한 획기적인 일인바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바임.

11. 新品種 벼의 搗精收率向上을 為한 搗精要因에 關한 硏究

(농공이용연구소) 韓判柱, 金泳相**, 李秉英

食糧增産에 크게 寄与할 多收性 新品種들에 対한 搗精收率을 調査함과 同時에 搗精收率의 向上을 図謀할 搗精工程過程에서 이들 水稲新品種의 搗精要因에 關한 比較調査의 結果報告임.